

원폭 위령비 참배·연쇄 정상회담...尹, G7외교행보 마무리

2박3일 히로시마서 양자·다자회담 촘촘... '안보 협력'·'기여외교' 부각 한일·한미일, 참관국 정상들 만나... 젤렌스키 회담은 '가치 연대' 상징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G7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2박 3일간 히로시마에 머무르며 한일·한미일·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아울러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첫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방일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열렸다.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9월 스페인 마드리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일 관계 개선을 물꼬로 한미·한미일 관계가 강화된 흐름이 반영된 행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공급망 불안정 등 위기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기시다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변명과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7일 서울 회담 이후 2주 만이자 올해만 세 번째 열린 것으로 '서해 외교'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고화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방한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회담'도 열렸다.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1일 오전 막판에 결정됐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유 진영 국가들과 '가치 연대'를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 외교 기조와도 맞닿은 만남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호주·베트남(19일), 인도·영국(20일), 일본·코모로·인도네시아·한미일(21일) 등 총 8개의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자국의 흥수 재난 상황으로 조기 귀국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는 20일 약속 회담을 했다.

방일 전후로 서울에서 캐나다·독일·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치러졌거나 예정된 만큼 사실상 프랑스를 제외한 G7 국가 대부분과 대화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G7 정상회의 기간 경제 분야 성과도 부각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세계 인구 1위인 인도, 우리나라 제3대 교역국인 베트남, 핵심 광물 부국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배터리·원전·방위산업까지 협력 수준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다자회담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G7과 협력해 이른바 A(Agriculture·농업), B(Bio·바이오), C(Climate·기후) 분야에서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강조했다.

핵심 광물, '농업·바이오·기후'(ABC), 인도-태평양 등 3대 키워드로 요약되는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의 협력을 약속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 식량 위기 국가에 쌀 지원 10만 t으로 확대 ▲ K라이스 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사업을 통한 아프리카 빈곤국 쌀 생산 지원 ▲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키 여사가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천400만 달러 규모의 공여 ▲ G7 기후클럽 참여 및 탈탄소 협력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른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국가들과 '기여외교' 보조를 맞춰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김남국 구하기 매달리는 이유 뭔가”

김기현, 의원직 제명 거듭 압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의혹으로 탈당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거듭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쟁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며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은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고, 정계안 국회 본회의의 직회부를 통해 김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불과 1년 전 ‘김수환 박’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 김기현을 그 흔한 윤리위 소집 한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전광석화처럼 정계안을 처리했던 그 민주당의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나”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친 파렴치한 김 의원에 대해 유급 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아붙였다.

앞서 ‘김수환박’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작년 4월 당시 김 대표가 법사위원장직을 접거해 회의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징계안

을 제출,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당시 김 대표는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시민단체가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도심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국면 전환용 장외집회 연설까지 하면서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며 “이 대표는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힌 건가. 김남국의 코인 자산이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건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리특위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을 질질 끌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만,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을 향해서도 “뒤로는 부도덕한 짓을 일삼았으면서도 마치 깨끗한 청년 정치인인 척하며 ‘코인 먹튀’를 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꿈수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1200조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두드린다... ‘K-개발’ 들고 폴란드행

원희룡 장관 21~23일 바르샤바 찾아 우크라이나·폴란드 정부와 재건사업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를 찾아 1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 논의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원 장관은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방안을 논의한다고 국토부가 21일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는 업무협약(MOU)

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원 장관은 한국의 재건 경험을 소개하며 스마트 시티, 첨단산업단지, IT 기반 교통망 등 한국만의 노하우를 담은 ‘K-개발 플랫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기업과 공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작업이다.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철도, 도로, 군사시설 재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건과 관련한 유럽 거점국인 폴란드에는 후방 보급기지 등 군 공학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방한한 울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재건사업 규모가 9000억달러(약 12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며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설립과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산업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르샤바에서 원 장관은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3국 민간단체 주도로 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콘퍼런스’에도 참석한다.

현지에서 열리는 재건 회의에 장관급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건사업 협력을 힘에 실으려는 목적이다.

원 장관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후 복구부터 경제성장까지 이룬 K-개발 플랫폼을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24~25일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